



네 생각은 어때? 하브루타 꼼꼼 강좌

하브루타 수업 모형 - 문제 만들기 수업 모형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문제는 교사가 만들고 학생은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교사가 미리 공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은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결국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공부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확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지식을 만들고 학생들에게서 지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교육 방식이다. 공부는 학생들이 하고 교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시험이나 평가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출제해 보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 모형



- ① 교재 범위 철저히 공부하기
- ② 문제 만들기 -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등

- ③ 둘씩 토론하여 문제 다듬기
- ④ 짝과 좋은 문제 골라내기
- ⑤ 모둠별로 토론하여 문제 다듬기
- ⑥ 모둠에서 좋은 문제 골라내기
- ⑦ 골라낸 문제를 출제한 의도 정리하기
- ⑧ 문제와 출제 의도 발표하기
- ⑨ 쉬우르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본다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수정하면서 교사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문제를 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저절로 키워진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유아기 문제 만들기 수업의 예

그렇다면 과연 유아기 교육에서도 문제 만들기가 가능할까? 대부분 생각조차 못 할 테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봐야 실질적인 지식이 강화된다.

지난 호 ‘친구 가르치기 수업 모형’에서 언급한 ‘곤충의 한살이’와 ‘1년생 식물의 한살이’를 예로 들어 ‘문제 만들기 수업 모형’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교사가 유아들과 여러 자료를 통해 상호 작용하며 주제 학습을 한다. ‘곤충의 한살이’의 경우, 곤충의 특성과 더불어 알이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과정이 학습될 것이다.

‘1년생 식물의 한살이’의 경우, 1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의 차이는 물론, 씨앗이 발아되어 싹이 나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었다 지며 씨앗이 맺히는 과정이 학습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한 후 이제 유아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에게 설명하며 가르치게 한다. 즉 친구 가르치기 수업 모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가르친 친구가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게 한다.



질문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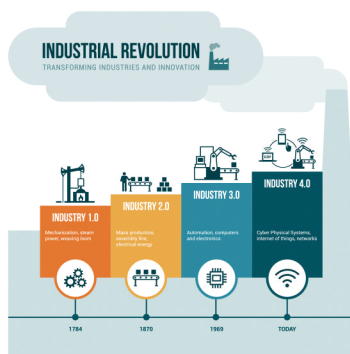
- ▶ 곤충이 뭐야?
- ▶ 곤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애벌레는 어떻게 생겼어?
- ▶ 애벌레를 본 적이 있니?
- ▶ 애벌레는 어떻게 움직여?
- ▶ 번데기는 어떻게 생겼어?
- ▶ 번데기가 어떻게 곤충이 되지?



이 과정이 바로 ‘문제 만들기 수업 모형’이 된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지는 질문은 ‘질문 만들기 수업 모형’에서 만드는 질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질문 만들기 수업 모형에서 만드는 질문은 학습자 입장에서의 질문이었지만 문제 만들기 수업 모형에서의 질문은 교수자 입장에서의 질문(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문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가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면 유아기 수준에서도 문제 만들기 수업 모형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런 활동을 가능한 한 많이 할수록 유아들의 생각을 크게 키워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해 갈 수 있다.

생각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 하브루타



지금까지 하브루타의 개념과 수업 모형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 유아들이 살아가야 할 제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지금보다 더 극한의 경쟁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생각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독창적으로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즉, ‘생각 능력’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말하는 수업에서 유아들이 말하는 수업으로 교수·학습 활동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서 생각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이다. 하브루타가 바로 생각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